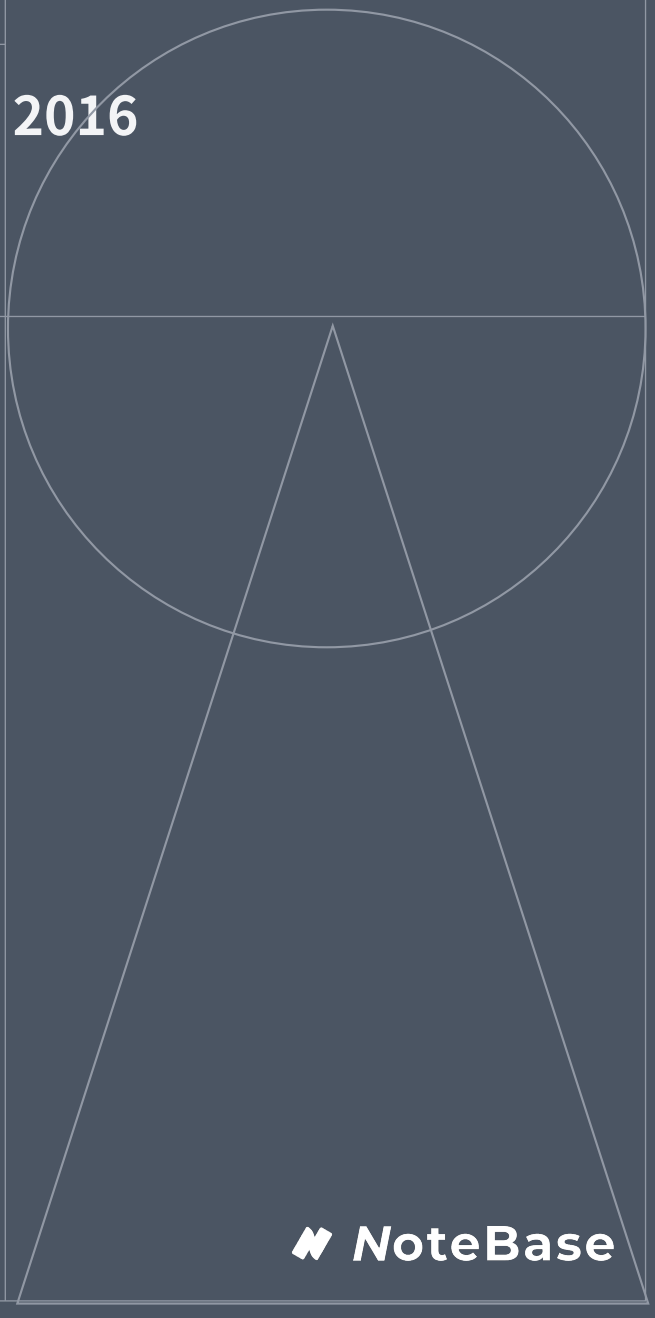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6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16

문 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① 열쇠, 새빨갛다

② 덮밥, 짙푸르다

③ 감발, 돌아가다

④ 젊은이, 가로막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덮밥'은 '덮-'과 '밥'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짙푸르다'는 '짙-'과 '푸르다'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말이다. 두 단어 모두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말이다. 그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으면 통사적 합성어, 다르면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와도 구별해야 한다.

① X: '열쇠'는 '열- + -ㄹ + 쇠'로 분석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관형사형 어미 '-ㄹ'이 명사 '쇠'를 꾸미는 구성을 이루며, 어간 끝의 'ㄹ'과 어미의 'ㄹ'이 겹쳐 하나로 실현된 것이다. '새빨갛다'는 '빨갛다'에 '매우 짙고 선명하게'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가 붙은 파생어이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덮밥'은 동사 '덮다'의 어간 '덮-'과 명사 '밥'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짙푸르다'는 형용사 '짙다'의 어간 '짙-'과 '푸르다'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일반적인 문장 구성에서는 '덮은 밥', '짙고 푸르다'처럼 **어미가 필요하지만, 두 합성어에는 그 어미가 없다**.

③ X: '감발'은 동사 '감다'의 어간 '감-'과 명사 '발'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그러나 '돌아가다'는 '돌- + -아 + 가다'로 분석되며, **연결 어미 '-아'**로 두 용언을 잇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을 따른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이 아니다.

④ X: '젊은이'는 '젊- + -은 + 이'로 분석되며, 관형사형 '젊은'이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 '이'를 꾸미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가로막다'는 부사 '가로'와 동사 '막다'가 결합한 말로,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NoteBase

문 2. 맞춤법에 맞는 것은?

① 희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쳐진 이유가 있겠지.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여요.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궈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잠깐 거쳐 간다는 뜻의 '들르다'는 **'들른 후'**로 활용한다. **'거여요'**도 '거이어요'가 줄어든 말이므로 바른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치뤄야'를 **'치러야'**로 고쳐야 한다. 기본형은 '치루다'가 아니라 '치르다'이며, 어간 '치르-'에 '-어야'가 붙으면 모음 'ㅡ'가 탈락하여 '치러야'가 된다.

② X: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보다 뒤떨어졌다는 뜻이므로 '뒤쳐진'을 **'뒤처진'**으로 고쳐야 한다. '뒤처지다'는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는다는 뜻이고, '뒤쳐지다'는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진다는 뜻이다.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라는 뜻의 '내로라하다'를 쓴 '내로라하는'은 바른 표기이다.

③ O: '들른'은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라는 뜻의 '들르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형태이다. 삼촌 댁에 잠깐 거쳐 간다는 문맥에 맞는다.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받침 없는 '거' 뒤에서 '이어요'가 줄어들면 **'거여요'**가 된다. '거이에요'가 줄어든 '거예요'도 쓸 수 있다.

④ X: '잠궈'를 **'잠가'**로 고쳐야 한다. 기본형은 '잠그다'이며, 어간 '잠그-'에 '-아'가 붙으면 모음 'ㅡ'가 탈락하여 '잠가'가 된다. '생각지'는 '생각하지'에서 '하'가 통째로 줄어든 형태이므로 바른 표기이다.

NoteBase

문 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십여 년'에서 **'-여'는 접미사**이므로 '십'에 붙이고, **'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따라서 '십여 년 전'처럼 쓰는 것이 바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십여'로 붙여 쓴다. 기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년'은 앞말과 띄어 써서 **'십여 년'**으로 적는다. '전'도 앞말과 띄어 쓰므로 '십여 년 전에'의 띄어쓰기가 바르다.

② X: '정한대로'는 **'정한 대로'**로 고쳐야 한다. '정한'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는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한편 '짤 수밖에 없다'에서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짤'과 띄고, '밖에'는 조사이므로 '수'에 붙인다. 바른 문장은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 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이다.

③ X: '요청시'는 **'요청 시'**로, '재조정 하여야'는 **'재조정하여야'**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 '시'는 '때'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재조정하다'의 '-하다'는 명사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활용형인 '재조정하여야'도 붙여 쓴다. 바른 문장은 '수정 요청 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다.

④ X: '추진력 마저'는 **'추진력마저'**로 고쳐야 한다. '마저'는 이미 포함된 것에 다른 것을 더하는 뜻의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인다. '능력뿐'의 '뿐'도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 것이 바르다. '감당할 만한'은 보조 형용사 '만하다'를 앞말과 띄어 쓴 형태이다. 바른 문장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마저 없는 사람이다.'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 길러진다. 따라서 ㉣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①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②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③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④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앞에서는 개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강조하지만, 뒤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개인의 독특함만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그 한계를 짚는다. 두 내용을 이어 주려면 단순히 덧붙이는 '또한'보다 **전환·대조를 나타내는 '그러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돌파하다'는 장애나 난관 등을 뚫고 나아간다는 뜻이어서,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다는 문맥에는 어색하다. '탈피하다'는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므로, **기존의 사고방식을 탈피하는** 것으로 고치면 새로운 사고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② X: 앞 문장은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뒤 문장은 창의적 사고가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개인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한한다. 따라서 **전환·대조를 나타내는 '그러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은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말이므로, 여기서 '그러나'를 '또한'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O: 문장의 주어는 '더욱 중요한 것은'이다. 이에 서술어를 '길러진다'로 끝내면 '중요한 것은 … 길러진다'가 되어 호응하지 않는다. **'것은 … 점이다'**의 구조가 되도록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글은 개인의 독창성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이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주변 사물을 새롭게 보는 개인의 노력만을 제시하여 앞의 주장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과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와 같이 결론을 고치면 글의 중심 내용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5.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의 음이 다른 것은?

① 否認
② 否定
③ 否決
④ 否運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否運'은 '비운'으로 읽으며, 여기서 否는 **'막힐 비'**이다. '아니다'라는 뜻의 **'아닐 부'**와 음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否는 뜻과 쓰임에 따라 **'아닐 부'** 또는 **'막힐 비'**로 읽는다. 각 단어에서 否가 나타내는 뜻을 살펴 음을 구별한다.

① 否認(부인):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否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아닐 부'로 읽는다.

② 否定(부정):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한다는 뜻이다. 否는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아닐 부'로 읽는다.

③ 否決(부결):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否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아닐 부'로 읽는다.

④ 否運(비운): 운수가 막혀 어려운 처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否는 **'막힐 비'**로 읽으며, 앞의 세 단어에서 쓰인 '아닐 부'와 음이 다르다.

밑줄 친 否의 음이 나머지와 다른 단어는 '否運(비운)'이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설을 읽고 느낀 감동은 마음속에 있지만 말로는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말의 범위보다 넓다**는 밑줄의 내용을 보여 준다.

공통 해설

밑줄은 생각을 큰 그릇에, 말을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에 비유한다. 이는 생각과 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말로 충분히 옮겨지지 않는 사례를 찾아야 한다.

소설에서 받은 감동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례에서는 감동 자체는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그 내용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마음속 내용이 말로 표현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밑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반면 '사과'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른다는 것은 명칭의 유래에 관한 내용이고, 같은 사물을 [tri:]와 [namu]로 달리 표현한다는 것은 언어에 따른 명칭의 차이에 관한 내용이다. 시간을 초·분·시간으로 나눈 것이 사회적 약속이라는 사례도 시간의 구분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사례에는 **마음속 내용이 말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상황이 제시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7. '샛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패널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패널 토의는 3~6인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유형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① ㉠과 ㉡은 모두 '샛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② ㉠과 ㉡은 모두 '샛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③ ㉡은 토의자가 샛강의 생태적 특성, 샛강 살리기의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④ ㉠은 '샛강 살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찬반 입장을 나누어'가 부적절하다. 패널 토의는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정보·지식·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패널 토의는 전문가들의 토의가 끝난 뒤 청중의 질문을 받고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심포지엄도 전문가의 발표 이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한다. 따라서 두 방식 모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청중이 질문하고 전문가가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② O: 제시문은 토의를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으로 설명한다. 패널 토의와 심포지엄은 모두 토의의 유형이므로, '샛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목적을 공유한다.

③ O: 심포지엄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나의 토의 문제를 **하위 주제로 나누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발표**한다. '샛강 살리기'를 생태적 특성과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로 나누고, 각 전문가가 해당 내용을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하는 것은 이 방식에 부합한다.

④ X: 패널 토의는 3~6인의 전문가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샛강 살리기와 관련된 정보·지식·의견·견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문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한다**로 고쳐야 한다. 토의가 끝난 뒤 청중이 질문하고 토의자들이 답변한다는 부분은 제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시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담?"
나는 그를 밀어 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낀 그 음보를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낀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염! 화염! 빈곤, 주림,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김동인, 「광염 소나타」 중에서 —

① 화려한 기교가 없는 연주
②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연주
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주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는 불이 타고 남은 것이므로, '감정의 재'는 뜨겁게 타오르던 감정이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상태를 뜻한다.
앞에서 '야성', '힘', '귀기'가 없다고 했으므로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를 가리킨다.

NoteBase

공통 해설

'감정의 재'는 **불이 꺼진 뒤 재만 남은 모습**에 감정이 사라진 상태를 빗댄 표현이다. 바로 앞에서 피아노 소리를 규칙 없는 소음이라고 하고 '야성', '힘', '귀기'가 없다고 했으므로, 연주에 담겼던 강렬하고 기괴한 감정이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뒤에서 '나'는 베껴 둔 음보를 보고 연주하면서 야성적 힘과 기괴한 감정을 느끼며 흥분한다. 이 대조는 같은 음악이라도 **감정의 생생함이 드러나는지**가 핵심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밑줄은 연주 기교가 화려한지, 악보와 일치하는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표현이 아니다.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라는 해석이 이 문맥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9.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 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에요?”
“인석, 그걸 내가 으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다리께 가게루 갈 테니.”
“어디 …… 참, 딴은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눔이 담밸 사러 갔을까?”
“아무것두 안 사구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돌쳐서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 인젠 저눔이 어딜 가누.”
“인제, 개천가 선술집으루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 참, 딴은 술집으루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눔이 가게서 뭐든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왜 들어가는지 아르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루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십 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 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릴 거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은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
— 박태원, 『천변풍경』 중에서 —

①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②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③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④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소년은 거지 둘째 대장이 어디로 갈지 먼저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며 **대화를 주도**한다. 상대방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질문을 이어 가는 모습에서 소년이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두 사람은 모두 거지 둘째 대장의 행선지와 행동에 주목한다. 소년이 가게와 선술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며 반응한다. 관심사가 달라 대화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대상을 화제로 대화가 이어진다**.

② O: 소년은 처음부터 거지 둘째 대장이 어디로 갈지 아느냐고 묻고, '인제 보세요'라며 그의 다음 행동에 주목하게 한다. 이어 가게에 들렀다가 술집으로 가는 까닭까지 설명한다. 상대방은 이를 지켜보며 '그래 인젠 저눔이 어딜 가누'라고 묻는다. 이처럼 **소년이 화제와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고** 상대방의 호기심과 반응을 끌어낸다.

③ X: 소년이 거지들의 돈을 받아 쓰는 둘째 대장의 사정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이를 현실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전개되지는 않는다. 대화의 초점은 **그 사람의 행선지와 가게에 들르는 이유**에 있다. 상대방의 반응과 질문에 소년이 자신이 아는 사실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④ X: 상대방은 가게에 들어갔으니 무엇인가 샀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소년은 돈을 십 전짜리로 바꾸러 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상대방의 짐작을 구체적인 정보로 바로잡는 과정**이다.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절충점을 찾는 과정은 아니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떼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① 학생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②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
④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학생들이 말에 집중하고 미소와 끄덕임 등으로 호응하자 교수의 강의 태도와 학생들의 참여가 함께 달라졌다. 이는 **공감하는 듣기**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 준다.

NoteBase

핵심 풀이

공감하는 듣기는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를 이해하며 듣고 있음을 반응으로 나타내는 태도이다. 글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집중하고 미소, 눈빛, 고개 끄덕임, 질문으로 호응했다. 그 결과 교수는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고 열의 있게 강의하게 되었으며, 학생들도 처음의 듣는 척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실제로 강의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듣는 사람의 적극적인 호응이 양쪽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이 글 전체를 포괄한다.

①과 ②의 '학생 간', '교수 간'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대상을 잘못 짚었다. 학생들끼리 의견을 나누거나 교수들끼리 소통하여 변화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강의하는 교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룬 글이다. 심리학 교수는 실험을 계획했으며, 인류학 교수에게는 실험 사실을 비밀로 했다.

③의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은 말로 전달되는 내용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글에서 변화를 이끈 것은 특정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듣고 반응하는 태도**이다. 질문과 같은 언어적 반응뿐 아니라 미소, 눈빛, 고개 끄덕임 같은 비언어적 반응도 중요하게 제시되므로, 언어적 메시지만으로는 글의 중심 내용을 담기 어렵다.

NoteBase

문 11.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 심리**를 나타낸다. '기와집'은 실제 형편보다 번듯하게 보이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공통 해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는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겉으로는 잘사는 듯이 꾸미려는 심리를 비유한 속담이다. 여기서 '가난할수록'은 어려운 형편을, '기와집 짓는다'는 형편에 비해 번듯한 모습을 내세우는 행동을 나타낸다.

제시된 뜻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업신여김을 피하려고 허세를 부린다**는 동기와 행동의 연결이다. 이 속담은 어려운 처지일수록 오히려 겉모습을 과장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제시된 의미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숲에서 자생하던 희귀 식물들의 개체 수가 줄었다.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④ 현대 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 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황이 급박하여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개재'를 '계제'**로 고쳐야 한다. '계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생'은 식물이 어떤 지역에 **저절로 나서 자람**을 뜻한다. 숲에서 저절로 자라던 희귀 식물들을 가리키므로 문맥에 맞는다.

② X: '개재'는 어떤 것들 사이에 끼어 있음을 뜻한다. 이 문장은 상황이 급박하여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따질 계제가 아니다'**로 고쳐야 한다. '계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를 뜻한다.

③ O: '성패'는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상품을 출시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가 결정된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는다.

④ O: '유례'는 **같거나 비슷한 예**를 뜻한다. 그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 정보가 많이 넘쳐 난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는다.

NoteBase

문 13.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① 타율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관한 한'의 '한'은 **의존 명사**이고, '독보적인'의 '독보적'도 **명사**이다. 이 둘까지 포함하면 '타율', '한', '독보적', '기록'으로 명사가 4개이다.

선지별 해설

명사는 사물이나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다른 말의 꾸밈을 받아야 쓰이는 의존 명사도 명사 수에 포함하며, 문장에 쓰인 단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센다.

① 4개: 명사는 '타율', '한', '독보적', '기록'이다. '한'은 '타율에 관한'의 수식을 받아 조건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의존 명사이다. '독보적인'은 **명사 '독보적' + 서술격 조사 '이다'의 관형사형 '인'**으로 분석한다. '독보적인' 전체가 '기록'을 꾸미는 관형어라고 해서 '독보적'의 품사가 관형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관한'은 동사 '관하다'의 활용형이므로 명사가 아니다.

② 2개: 명사는 '상자', '것'이다. '것'은 '이런'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고, '이런'은 관형사이다. '정돈되어'는 **동사 '정돈되다'의 활용형**이므로, 그 안의 '정돈'을 별개의 명사로 세지 않는다. '깔끔하게'도 형용사 '깔끔하다'의 활용형으로 명사가 아니다.

③ 3개: 명사는 '친구', '외', '사람'이다. **'외'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밖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며, 뒤에 조사 '에'와 '는'이 붙었다. '다른'은 여기서 '사람'을 꾸미는 관형사이고, '항상'은 부사이므로 명사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3개: 명사는 '모퉁이', '얼굴', '이'이다. '이'는 '얼굴이 하얀'의 수식을 받아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로 쓰였다. '저'는 '모퉁이'를 꾸미는 관형사이고, '하얀'은 형용사 '하얗다'의 활용형이다.

명사의 개수는 ① 4개, ② 2개, ③ 3개, ④ 3개이므로, ①의 문장에 명사가 가장 많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① 학술지의 규정(規正)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충분'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뜻으로 **充分**으로 쓴다. '협조할 사안이 충분히 있다'는 문맥에도 이 뜻이 맞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학술지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뜻하므로 **규정(規定)**으로 써야 한다. 規正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므로, 논문을 반려하는 기준인 규칙을 가리키기에 맞지 않는다.

② X: 문법을 이루는 요소들이 짜여 있는 체계를 뜻하므로 **구조(構造)**로 써야 한다. 救助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을 뜻한다.

③ O: '충분'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뜻이며, **充(찰 충)과 分(나눌 분)**을 써서 充分으로 적는다. 협조할 사안이 넉넉히 있다는 문맥이므로 한자 표기가 적절하다.

④ X: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이나 상태를 뜻하므로 **현상(現象)**으로 써야 한다. 懸賞은 어떤 일을 해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내거는 것이므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파악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뜻과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 미덥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口蜜腹劍형의 사람이다.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一敗塗地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首鼠兩端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면 참 後生可畏하다는 생각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후생가외(後生可畏)'는 후배가 앞으로 학문과 덕행을 쌓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경외할 만하다**는 뜻이다. 신입생이 선배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밀복검(口蜜腹劍)'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은 다정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는 것**을 이른다. 말이 번드르르하여 믿기 어려운 사람을 가리키는 문맥에 어울린다.

② O: '일패도지(一敗塗地)'는 한 번 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름**을 뜻한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크게 패하여 고향으로 달아난 상황을 나타내는 데 어울린다.

③ O: '수서양단(首鼠兩端)'은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망설이는 것**을 뜻한다.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친 상황에 어울린다.

④ X: '후생가외(後生可畏)'는 뒤에 태어난 사람이 앞으로 학문과 덕행을 쌓아 훌륭하게 될 수 있으므로 경외할 만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두렵다'는 **후배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이다. 신입생의 예의 없는 행동을 나무라는 문맥과 맞지 않으므로, '후생가외하다'를 '무례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6.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사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은행에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관리에 다소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①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②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③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④ 영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영수는 개인의 정보 관리 잘못에 따른 책임을 은행에 지우는 데 반대한다. 민수는 소비자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보므로, 피해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돌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영수는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이 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반면 민수는 소비자의 부주의를 인정하되, 이를 지적하기보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수는 소비자에게만 피해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넘어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② X: 영수는 은행과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 관리 책임을 강조한다. 민수가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해결 주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 범죄 확산의 일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은행과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분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X: 영수의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도움을 바라는 뜻이고, 이어지는 말은 은행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 **은행이 실제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로 볼 수는 없다. 민수도 은행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고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④ X: 민수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부분은 발언과 부합한다. 그러나 영수는 은행이 개인의 정보 관리 잘못에 따른 책임까지 지는 데 반대하고 **은행이 도울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말한다. 따라서 영수가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은행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분석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①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②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③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서양과 동양의 관점은 모두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모인다. 위축되기보다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한 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태도를 설명한다. 위기가 아예 오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발생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심이다.

② O: 서양의 관점에서는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동양의 관점에서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합리적인 대응과 기회의 모색**이라는 두 관점의 공통 내용을 포괄한다.

③ X: 위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은 글의 중심 주장을 드러내지 못한다. 글의 초점은 기회가 반드시 오는지 여부보다, **위기에 대한 관점과 대응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④ X: 글에는 위기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 없다. 서양의 관점에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라고 했지만, 그 원인을 욕심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중심 내용은 욕심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위기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 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금와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중략)…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략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을 삼아 떠나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① ㉠: '유화'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② ㉡: '유화'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③ ㉢: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④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대소는 주몽과 협력한 인물이 아니라 **주몽을 해치려 한 인물**이다. 주몽은 대소와 모의한 것이 아니라, 준마를 일부러 마르게 하여 금와에게서 그 말을 받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에서 유화는 해모수에게 유인되어 사통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말에서 부모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귀양을 보냈다고 밝히므로,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② O: ㉡에서는 유화가 햇빛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다시 비추었다고 한다. 이어 '이로 인해 임신하여'라고 서술하므로, 유화의 임신은 **햇빛을 받은 일**에 따른 신이한 사건으로 제시된다.

③ X: ㉢에서 대소는 주몽을 그대로 두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며 미리 해칠 것을 금와에게 건의한다. 따라서 대소는 **주몽과 모의한 협력자가 아니라 적대자**이다. 준마를 얻은 것은 주몽이 스스로 꾀를 낸 결과이다. 주몽이 준마는 적게 먹여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자, 금와는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준마를 주몽에게 주었다.

④ O: ㉣에서 주몽은 건널 배가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황천후토에 도움을 청한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넌다. 여기서 '교통'은 서로 통한다는 뜻으로, **신에게 기원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신과 교통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근대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①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②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③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④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불안과 고독을 피하려고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외부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세우지 않고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판단의 주체성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지문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려고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는 경향이다. 다른 존재에게 복종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도, 타인과의 종속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같은 양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각 태도에 자율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속성이 나타나는지 비교해야 한다.

①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하는 태도이다. 이는 **누구의 이익을 중시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다른 존재에 종속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이다. 이는 가족 안에서 **누구의 요구를 우선 고려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이들의 요구를 고려한다는 것만으로 결정하는 사람의 자율적 판단이 사라지거나 아이들에게 종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자신의 견해를 갖는 대신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의견의 타당성을 스스로 따져 판단하지 않고 **외부의 의견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존재에 의존하려는 속성이 나타난다.

④ 직업에서 얻는 만족보다 취미 활동에서 얻는 즐거움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이는 **어떤 활동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가**에 관한 선호이다. 취미를 더 중시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포기하거나 외부의 존재에 종속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판단을 외부의 의견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③이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하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궐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궐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데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즉각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공공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한, 남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또는 파티 도중에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시가를 꺼내어 입에 문다.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뱉어 내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궐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궐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캠페인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즉각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궐련을 피우지 않지만, 싸구려 술집에는 여전히 궐련 연기가 자욱하다.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 글은 시가와 궐련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의 차이를 설명하지만, '상징적 행동'이나 '기능적 설명' 같은 **용어의 뜻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현상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과 용어의 뜻을 풀이하는 것은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묻고, 이어서 차별의 원인을 설명한다. 이러한 **자문자답**은 독자가 원인에 관심을 갖게 하고 뒤에 이어질 설명을 기대하게 한다.

② X: '상징적 행동', '기능적 설명'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시적으로 풀이하는 **정의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은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는 대신, 시가와 궐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차이가 생긴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③ O: 시가 유행의 원인이 사람들의 흡연 욕구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일부를 인정한다. 그러나 흡연 욕구만으로는 **시가에는 관대하고 궐련에는 관대하지 않은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그 주장의 한계를 밝힌다.

④ O: 궐련 흡연자는 공공건물 밖에 모여 흡연하는 반면, 시가 흡연자는 식사나 파티 도중에도 당당히 시가를 꺼내며 주변의 제지를 받지 않는 모습을 비교한다. 이어 보건 당국의 캠페인으로 궐련이 **죽음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비교와 설명을 통해 흡연 현상을 단순한 흡연 욕구나 유해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적 상징을 함께 살펴야 함을 드러낸다.

NoteBase